

스무해 전에 있었던 일들



전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 서동석

1954 서울생, 오산고등학교, 건국대 경제학과, 민불련 3기위원장, 민통련과 전민련 중앙위원,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현 통일문제연구소 운영위원, 민주회운동공제회 준비위조직특위위원, 대한불교조계종 달마사 시중

우리가 걸었던 80년대 상황은 정말 아득했다.
산은 산과 깎지 구름처럼 산맥을 펼치 놓았는데,
우리는 그 험한 반파쇼 민주화, 반독집 민중의 세상,
만외세 민족통일의 길을 걸으며 숲한 사연을 낳았다.

고개마루에서 돌아보며

지난 해 여름, 오래 전부터 별러 왔던 한강탐사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우리 겨레의 역사와 함께 흐르는 한강의 발원지, 태백의 검룡소를 물어물어 찾아갔고 거기서부터 단양까지 꼬박 이틀동안 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자전거발판을 밟았다. 강은 산을 가르고 벼랑을 만들었다. 강을 끼고 함께 흘러가는 도중에 산맥의 준령을 따라 가파른 비탈 길을 넘기도 했다.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간 곳도 있다. 자동차로도 쉽지 않은 길을 순전히 나의 근력으로 은빛 바퀴를 굴렀다. 단양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고개, 해발 800 남짓 하는 고수재 고개마루에서 돌아온 길을 돌아보니 아득하기만 했다. 흐르는 땀을 연신 훑쳐내며 지금 내가 달려온 길과 겹쳐, 지난 80년대의 크고 작은 일도 떠올랐다.

집안

모이면

논의하고 뽑아대고
바람처럼 번개처럼
뜨거운 것이 빛나던 때가 좋았다

하나를 알면
열을 행하고
개인을 이야기하면
역사를 들이대고
사랑이 튀기면
꽃본 듯이 미쳐 달려가던 곳

추렴거리도 없이
남지볶음 안주 많이 집는다고
취어박던 그 친구가 좋았다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었다
헐벗고 굶주려도
결코 전진하지 않았다

돈벌이에 미친 자는
속이 비었다 하고
출세에 연연하면
호로자식이라 하고

다만 통일 논의가 나래를 퍼면
환장해서 날뛰다 밤이내려
춤고 떨리면 찾아가던 곳

식은 밥에 김치말이 끓는 화로에
내 속옷의 하얀 서캐를 잡아주던
말없는 그 친구가 좋았다

그것은 내 이십대 초반
민족상잔 직후의
강원도 어느 화전민 지대였지

열 여섯쯤 된 계집애의
등허리에 핀 부스럼에서
구데기를 파내주고
우리는 얼마나 울었던가

나는

일생을

저 가난의 근원과 싸우리라 하고
또 누구는 민중과 결혼한다 하고

화전민이 답례로 보낸

옥수수 막걸리로

한판 벌린 웅장한 아름드리 소나무
그 위에 걸린 밝은 달 흐르는 맑은 물
뜨겁게 부대끼던 알몸의 낭만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저 밝은 달 저 밝은
물만을 대상으로 노래할 수 없다며
허공을 쥐어박고
인간의 현장으로 뛰어들던
빛나던 눈의 그 친구가 좋았다

세월은 흘렀다
다시 강산에 폭풍이 몰아치고
이름있는 주소마다 자갈이 물렸다
더러는 먼저 가고 더러는 물러서서
바람이 차면 여울지던 곳

포구의 눈물이라는
늪다구리집
술값은 통일된 후에 준다 하고

한없이 굽이치는 이의 짓이란
마냥 그 모양이니 그러자 하고
이야기가 쭈뼛하면
슬며시 덧문을 닫아주던
그늘진 그 얼굴

그후
그 집은 망했다고
술꾼들은 발이 빠졌다 하고
이 찬란한 파국을 미리 울던
그 여인이 좋았다

그래도 눈물은 분분했다
가파른 현장에선 독재와 싸우는 이들의 남모름
예지가 불을 뿜는데

한 번 스친 밤의 꽃을 못 잊어
소년원까지 찾아가서
꽃다발을 잔뜩 안고
서서 울던 그 친구를 생각했다

바로 거기서
정서적 방랑이나
이지적 결단이나
꼬리가 꼬리를 잇는 말수를
냉정히 자르고 떠나간 그 사람

오오, 그 확확 뚫던 억센 주먹이여
이제는 모두 다 어디서 무엇을 하기에
현머리가 치마폭처럼 휘날리는 상기까지
삼십축 희미한 등불에 젖어
바시락대는 썩취소리에
저대한 역사의 목소리 일러 듣는 듯

그렇다
백번을 세월에 꺾여도
나는 늙을 수가 없구나
찬바람이 여지없이 태질을 한들
다시 끊이 없는 젊음을 살리라
구르는 마룻바닥에
새벽이 별겅게 물들어 온다

충북을 일으키는 큰 함성이 되어



전 충북 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김형근

대통령직무 제2건국비밀국민추진위원회 협력국장
현 열린우리당 국민통합위원회 국장

충북민협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서울 중심의 운동반으로는
이 땅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충북지역에 현실화함으로써 지역운동의
한 획을 그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충북에서도 민통련의 지역조직인 충북민주운동협의회가 창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지역의 운동역량을 모아 지역차원의 정치투쟁을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최초의 조직이 된 것이다.

충북민협의 대 시민 입의 역할은 대중 유인물인 '함성' 지가 맡았다. '함성' 지는 수습회 동안 발간되며 당시 민주화운동 진영의 여러 주장을 대중적으로 선전하는 선구적인 함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배포하고 지켜내는 데 뒤따르는 탄압과 폭력에 대해 분노의 함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엄혹한 시기에서의 충북민협의 외로운 행진은 투쟁과 압제를 반복케하는 불꽃이었으며, 인간의 기쁨과 사랑이 어우러지는 용광로였고, 역사에서의 승리에 대한 이정표임과 동시에 그 장대한 주체였다.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은 선생, 계훈제 선생, 문익환 목사 등과 여익구, 최연 등 청년불자와 성연스님, 진관스님, 현기스님 등 약 150 명이 약식대회를 치렀다. 창립선언문이 낭독되고 만세삼창 순서로 이어질 무렵 경찰이 음식점의 문을 부수고 쳐들어왔다. 이수라장 속에서도 청년불자들이 몸으로 경찰의 난입을 막아 간신히 총회는 마쳤다. 의장에 여익구를 선출했고 상임지도위원으로 고은을 추대했다. 경찰은 총회에 참석했던 전원을 종로경찰서로 연행했다가 그날밤 늦게 모두 석방했다. 경찰의 난입과정에서 부상 당한 청년도 슬했다. 그 가운데 전일곤(후일 민불련의 총무를 맡았다가 85년 10월 8일 서울 청량리에서 있었던 IMF/IBRD서울총회개최반대가두시위로 구속되기도 한다)은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민통련은 즉각 민불련 창립 때 있었던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과 연행에 강력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불련의 기관지 '민중법당'의 제호는 고은 선생의 작품이다. 이 민중법당은 민불련이 당한 수난을 대표하고 있다. 발간할 때마다 발행인 여익구 선배는 구류를 살았다. 이유는 '유언비어날포죄'였다. 광주학살의 진상과 10·27 법란, 안기부의 고문 등이 민중법당에 실렸는데 이것이 그 죄에 해당한다는 게다. 민중법당은 통권 5호까지 발행되었다. 매회 민중불교운동의 기초가 되는 운동론을 보완하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실렸다. 급기야 89년에는 민중법당 5호에 실린 운동론을 근거로 민불련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였고, 제3기 임원들이 모두 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의장 서동석, 조직국장 김영근, 기획국장 이남재, 총무국장 차민제와 상근여직원 등이 연행 구속됨으로써 조직활동은 큰 타격을 입었다. 결국 이 여파로 민불련은 조직적 활동을 그치고 만다.

본격적인 연대투쟁

민통련과 민불련의 실질적인 첫 번째 연대투쟁은 해고노동자 지원이었다. '툼보이'로 유명한 당시 구로1공단에 있었던 의류업체인 성도섬유는 노동탄압의 대표적인 회사였다. 민불련 여성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85년 6월 19일, 종로2가의 툼보이 매장 앞에서 성도섬유의 노동탄압을 폭로하는 가두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로 여성부 간사 김애라가 연행되어 구류를 받았다. 여성부장은 박상희였다. 이어 한국전쟁 이후 노동운동에 일대 사건으로 기록된 '구로지역동맹파업' 지원투쟁도 민통련이 회원단체들과 함께 벌였다. 그때 장충동 분도회관에 있었던 민통련 사무실이 경찰의 집중적인 통제를 받게되자 인

사동에 있던 민불련 사무실에서 서울민통련,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등이 함께 파업지지농성을 했다.

민불련의 창립과 활발한 활동은 불교계의 운동력을 크게 높였다. 역량을 넘어서는 과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불교계의 우려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전두환정권의 민중운동탄압에 맞서 힘찬 투쟁을 아끼지 않았다. 조직적 역량이 여타의 민중운동 조직에 비해 미약한 편이었으나 반제반파쇼투쟁의 전선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민중의 해방과 조국의 통일 그리고 불교의 자주화와 민중화를 위해 정열적인 활동을 벌였다. 내적으로는 민중불교운동론의 정립을 위한 학습과 연구에 매진하는 한편 불교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열정적으로 나날을 보냈다. 또한 반민중적·반민족적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각종 시위와 집회, 농성 등에 전력을 기울였다.

85년 구로공단의 대우어패럴 파업을 계기로 촉발된 동맹파업 당시 파업 현장에 대한 지원 및 농성도 적극 벌였으며, 특히 86년 초부터 민통련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민주제 개헌 요구투쟁에도 어느 단체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80년 5월 광주항쟁 이후 최대의 가두시위로 기록되는 5·3인천투쟁을 중심으로 이끌었고, 이로 인해 안기부 등 공안기관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게 되었다. 하여 여익구의 의장이 수배되고 서동석 집행위원장, 진철승 문화부차장(문화부장 : 인복스님), 성연스님, 김승진 학생이 줄줄이 구속되는 중대한 조직적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탄압은 불교계의 결집을 도와준 셈이 되어 곧 조직을 재정비, 고평진 선배를 제2기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는 박종철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촉발된 민주화항쟁에서 불교계의 투쟁을 이끌어 내었고, 이어 민통련의 주도로 결성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큰 역할을 맡는 한편, 역시 민주헌법쟁취 불교운동본부를 결성 국민적 투쟁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85년부터 시작된 역사의 세찬 물줄기는 87년에 이르러 또 한번 휘몰아친다. 광주를 피로 물들이며 정권을 장악한 군부정권은 이 물줄기에 의해 갈라져 산이 되고 벼랑이 되며 새로운 길을 내어주게 된다. 그 어려운 과정에 민통련과 민불련은 동고동락을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감동적인 역사의 한 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어렵게 만든 길은 어처구니없게 우리 스스로를 헤어지게 하였다. 목숨을 걸면서 일궈낸 민중해방 민족통일의 길이 걸보기에는 비슷했지만 정작 좀 가기 좋은 길을 만나자 그 실상은 달라졌다.

87년 10월. 대통령선거를 맞아 민통련은 김대중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민불련 의장이었던 고평진씨도 민통련의 결정을 이어받아 민불련을 비롯한 민주헌

법쟁취불교운동본부의 처지(입장)로 결정하였다. 나는 이 처지하고는 따로 민중 독자후보 진영에서 활동하였다. 선거가 끝난 뒤 고팡진씨는 정치인으로 자리를 바꿨고 그 후임으로 내가 민불련 의장을 맡았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전열이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며 민불련의 노선을 재정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갈 길을 내다보며

민불련 기관지 민중법당 창간호에서 고은 선생은 이렇게 한 말씀을 남겼다.

‘본디 불교라는 물건은 민중의 물건입니다. 중생의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 민중을 굳이 강조하여 민중불교라 함은 잘못입니다. 이 잘못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하면 그것이 곧 불교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고쳐야 합니다. 고쳐서 불교를 제 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불교의 본처야말로 중생이요 민중입니다. … 민중은 민중의 때를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불교 역시 본래의 불교, 민중의 불교로 돌아가는 일, 그 회향이 바로 새 세상 민중세상을 펼치는 일임을 깨닫는 불교로 일어섰습니다. … 민중불교란 백척간두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결판을 내는 큰 일입니다.’

어쩌면 ‘불교’ 앞에 민중이라는 수식어를 쓴다는 게 큰 오류일 수 있다. 불교계 한쪽에서 민중불교를 타치는데 끈질 들먹이는 말도 그런 맥락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고은 선생의 지적대로 불교역사는 민중의 역사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 역사를 바로잡으려니 민중불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중의 해방은 인간을 자본으로 가둬두는 형식을 근본적으로 깨는 투쟁이다. 그러기에 민중불교운동은 민중의 해방을 목적으로 한다. 계급에 의한 억압과 수탈이 없는 세상….

지난 1995년 민불련 창립 열 돌을 맞아 민불련 기관지 등을 영인한 합본호를 내면서 나는 발행사로, 우리의 민중불교운동은 그 이름을 달리 하더라도 다시 조직되고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 진짜 민중해방의 세상을 이뤄내야 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비록 민불련은 해체되었지만 그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해야 할 운동’이라고 하였다. 왜, 민중해방은 인류가 반드시 실현 시켜야 할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난, 민통련과 민불련을 통해서 그 보편적 가치를 배웠다. 그리고 여전히 그 생각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